



미 증시, 유가 급등, ISM 제조업지수 부진 소화하며 혼조세

미국 증시 리뷰

3 일(월) 미국 증시는 OPEC+ 추가 감산 발표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상승 우려에도,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를 소화하며 혼조세 마감 (다우 +0.98%, S&P500 +0.37%, 나스닥 -0.2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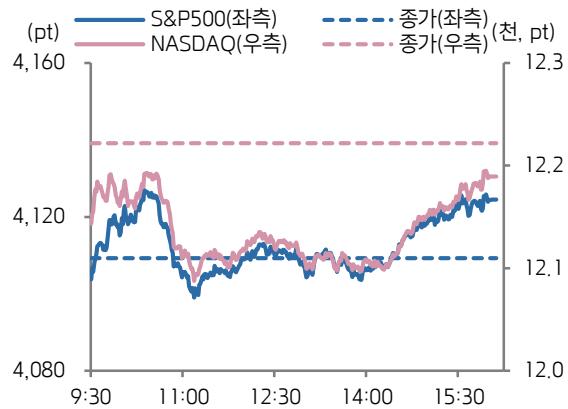
OPEC+ 소속 산유국들은 지난 2 일 다음달부터 하루 100 만 배럴 이상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, 금번 OPEC+ 감산은 2021년 9 월부터 올 1 월까지 2 억 5000 만 배럴의 전략적 비축유(SPR)을 채우지 않는 미국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.

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에 대해 "OPEC 의 이번 결정은 놀라운 일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"라고 평가. 올 상반기에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유럽이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어 다소 높은 유가를 예상하긴 했지만, 동시에 "유가는 변동이 심해 따라잡기 어렵지만 일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이는 연준의 일을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"고 말했다. 그러나 "PCE 물가지수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탓의 2 배 이상이므로 기준금리가 5%를 넘을 필요가 있다"고 강조

미국 3 월 ISM 제조업지수는 46.3(예상 47.5, 전월 47.7)로 예상치 하회하며 2020년 5 월 이후 최저치 기록. 신규 주문은 전월 47.0에서 44.3, 고용지수 49.1에서 46.9, 구매물가는 51.3에서 49.2로 모두 위축국면 진입. 집계측은 "주목할 만한 것은 고용이 둔화하고있다는 것이고, 앞으로 몇 달 간 고용시장 둔화와 실업률 상승을 준비해야 할 것"이라고 언급. S&P 글로벌 3 월 제조업 PMI 도 49.2(예상 49.3, 전월 47.3)로 부진. 한편 유럽 S&P 글로벌 3 월 제조업 PMI 는 47.3(예상 47.1, 전월 48.5)는 예상치 상회했으나 전월대비 부진.

업종별로 에너지(+4.9%), 헬스케어(+1.1%), 소재(+0.7%)업종은 강세, 부동산(-0.9%), 경기소비재(-0.9%), 유틸리티(-0.7%)업종은 약세. 브렌트유가 6% 이상 급등하며 셰브론(4.16%), 엑손모빌(5.9%) 등 에너지 기업 강세. 테슬라(-6.12%)는 1 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, 그러나 가격인하에도 시장예상치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에 하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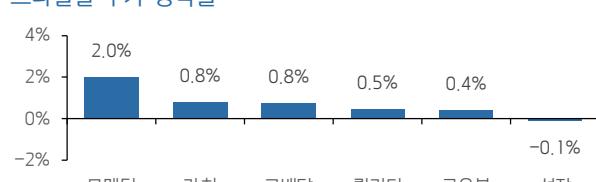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| 주요 지수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주식시장 | | | 외환시장 | | |
| 지수 | 가격 | 변화 | 지수 | 가격 | 변화 |
| 코스피 | 2,472.34 | -0.18% | USD/KRW | 1,316.64 | +1.16% |
| 코스피 200 | 320.38 | -0.51% | 달러 지수 | 102.07 | -0.42% |
| 코스닥 | 854.96 | +0.88% | EUR/USD | 1.09 | +0.03% |
| 코스닥 150 | 1,266.51 | +0.5% | USD/CNH | 6.87 | -0.03% |
| S&P500 | 4,124.51 | +0.37% | USD/JPY | 132.43 | -0.02% |
| NASDAQ | 12,189.45 | -0.27% | 채권시장 | | |
| 다우 | 33,601.15 | +0.98% | 국고채 3년 | 3.335 | +4.5bp |
| VIX | 18.55 | -0.8% | 국고채 10년 | 3.385 | +2.5bp |
| 러셀 2000 | 1,802.31 | -0.01% | 미국 국채 2년 | 3.963 | -6.2bp |
| 필라. 반도체 | 3,200.43 | -0.94% | 미국 국채 10년 | 3.411 | -5.6bp |
| 다우 운송 | 14,281.30 | -1.09% | 미국 국채 30년 | 3.628 | -2.2bp |
| 유럽, ETFs | | | 원자재 시장 | | |
| Eurostoxx50 | 4,311.05 | -0.09% | WTI | 80.42 | +6.28% |
| MSCI 전세계 지수 | 649.20 | +0.38% | 브렌트유 | 84.87 | +6.39% |
| MSCI DM 지수 | 2,791.44 | +1.15% | 금 | 2000.4 | +0.71% |
| MSCI EM 지수 | 989.18 | -0.11% | 은 | 24.02 | -0.56% |
| MSCI 한국 ETF | 60.86 | -0.59% | 구리 | 404.55 | -1.2% |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59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+0.2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25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06.5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민감도 상승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
2. 국내 2차 전지주 수급 쓸림현상 지속 여부
3. 역외 원/달러 환율 급락이 외국인 매매패턴에 미치는 영향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지난 3월 중 체감상 증시의 하방 압력을 높였던 SVB발 은행권 유동성 위기는 3월 말 이후 소강 상태에 진입한 가운데, 시장참여자들은 매크로 상 인플레이션, 경기 등 기존의 과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보임.

인플레이션 문제의 경우, 지난 금요일 3 월 PCE 물가 둔화 소식은 호재성 재료로 작용했지만, 주말 중 OPEC 의 서프라이즈 감산 결정(기준 일간 200 만배럴 감산 + 116 만배럴 자발적 추가 감산)이 국제유가의 6%대 급등세를 연출하게 만들면서 변수로 부상한 모습. 산유국의 이 같은 감산 결정을 놓고, 중국, 사우디, 러시아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라는 등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. 이들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기에 지정학적인 관점을 증시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안으로 취급하는 게 적절.

시장참여자들이 신경을 써야할 것은 공급단에서 등장한 변수가 인플레이션 경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하는 작업이 될 것. 전일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“산유국의 감산 결정은 서프라이즈한 일이며 얼마나 지속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고, 연준의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”고 언급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. 옐런 재무장관도 “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상당히 건설적이지 않은 행동”이라고 비판한 것도 마찬가지. 무엇보다, 시장에서도 그동안 원자재 등 상품 인플레이션 하락(=디스인플레이션)을 기본 전제로 수립해왔던 인플레이션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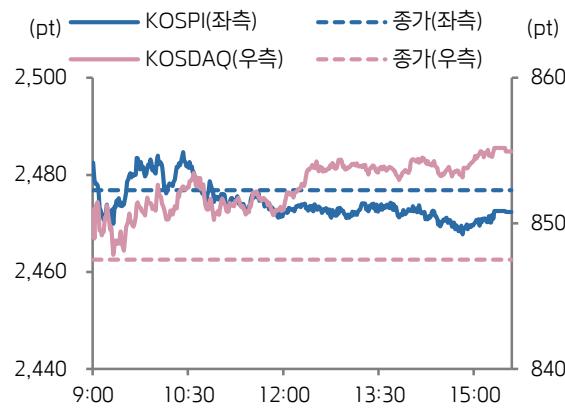
하지만 1) 연말까지 미국, 유로존 등 주요국 경기 둔화, 잠재적인 긴축 부작용 추가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한 수요 부진이 이어질 수 있음. 가령, 3 월 ISM 제조업 PMI 가 46.3 으로 전월(47.7) 및 예상치(47.5)를 모두 하회하며 3 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, 연준의 GDP Now 상 1 분기 성장을 전망치도 지난 3 월 중 3%대 후반을 기록했으나, 4 월 3 일 기준으로 1.7%대까지 내려온 상황. 또한 2) 현재는 ‘22 년 상반기 중 미국의 평균 CPI 가 약 8.3%대를 기록한 것에 따른 역기저 효과 발생 구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. 즉, 1)과 2)를 고려 시 당분간 공급 측면에서 유가 등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영향을 수요 부진과 역기저 효과가 상쇄시킬 수 있음을 시사.

결국 현재 80 달러대에 진입한 국제유가는 올해 하반기 이후 90 달러를 넘어서는 가격(‘22 년 상반기 국제유가 90~125 달러)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이상, 이번 산유국 감산 결정이 인플레이션에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.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.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의 장 후반 반등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, 상기 이슈는 가격의 진폭만 높일 뿐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, 증시의 하방 경직성 및 연말까지의 우상향 추세 등 기존의 경로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.

전일 국내 증시는 OPEC 의 긴급 감산 결정, 3 월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원/달러 환율 급등 vs 2 차전지주 강세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(코스피 -0.2%, 코스닥 +0.9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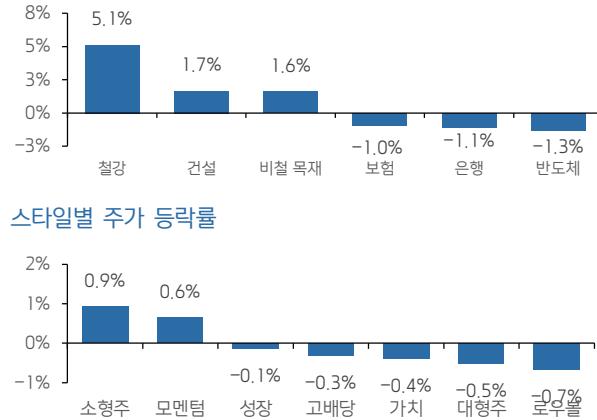
금일에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상존, 미국 ISM 신규주문 부진(2 월 47.0 → 3 월 44.3)에도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증시 결과, 달러화 약세 전환에 따른 원/달러 환율 하락(역외 -11 원) 등에 힘입어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. 장중에는 2 차전지주에 대한 수급 쓸림 현상, 할인판매에 따른 마진 악화 우려가 촉발한 테슬라(-6.1%) 주가 급락, SK 하이닉스의 약 2 조원 규모 해외교환사채 발행 소식 등을 소화해가면서 반도체, 2 차전지, 자동차 관련주들 내에서도 차별화된 종목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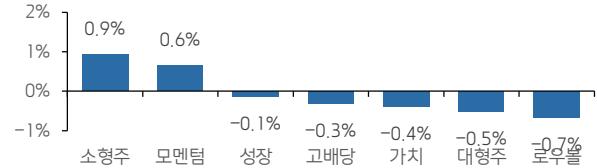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